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 소식

1월

2012년 2월 통합 234호

발행인 : 광선희 /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mo1@empas.com

- 여는 글 p2
- 기획글 | 학교폭력 근절, 학생인권조례제정으로부터 p3
- 어린이 글 | 준명이의 일기 p8
- 청소년 글 |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청렴한 사회 p9
- 책이야기 | 우종영 /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p11
- 영화이야기 | 부러진 화살을 보고 p12
- 생태유아교육이야기 | 생태유아교육이란 무엇인가? p14
- 회원탐방 | 서중호 회원을 만나다 p16
- 활동사진 p20
- 교사이야기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권한다 p22
- 회원 글 |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 (3) p25
- 논평 | 조중동 방송 댓가 뇌물,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p28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기사 p30
- 학부모 알림 | p32
- 지부일정 p34
- 10월 회비 보고 p35



▲ 통영에서

여는 글

곽선희가 추천하는 시

파씨 도라지씨 취나물씨를 위하여

임향례

씨앗들 중에는
아주 아주 늦게 싹을 틔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도
어떤 것은 두 달을 기다려도 안 나와
그만 포기하고 다른 것을 심어보려 호미질을 할 때
저의 성급함을 나무라며 이제 막 싹을 내미는 녀석이 있습니다.

파씨가 그렇고
도라지씨가 그렇고
취나물씨가 그런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곳 제천중학교
수준별 국어수업, 공부 못하는 '하'반에도
파씨 도라지씨 취나물씨를 닮은 녀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날은 답답해 그만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흙이 있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있는 한
더디지만 그래도 제 힘껏
싹을 틔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십년도 전, 내가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 되기도 전에 임향례 님의 시를 만났다.

그 후 줄곧 내 마음속 한곳에 남아있는 시이다.

지루할 만큼의 긴 기다림과 조용한 믿음이 아이들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자라게 한다는 것을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된 지금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시다.

(이번 달부터 '내가 추천하고 싶은 시'로 여는 글을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시를 추천해 주세요. 회원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규 남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지부장

◆ 학교폭력 근절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1)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피로의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최근 학교폭력이 세간의 문제로 떠오르자 급기야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처벌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피로의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인 피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해 수 백 건에 이르는 학교폭력은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학력 향상과 경쟁에 내몰린 교사와 학생이 모두 피로하고 지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경쟁에 내몰린 교사도 학생도 모두 피로할 수밖에 없다.

요 몇 년 학교에서는 학급 전체가 단합하여 무대에 오르는 합창대회, 학급끼리 삼겹살을 구워 먹고 서로 정을 나누는 학급 단합대회, 동아리 활동을 통한 경연대회 등 함께 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일련의 모든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입시에 밀려 점점 학급별 합창대회도 없어지고 미술 시간, 음악시간, 특별활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불러 근황을 묻고 학교생활의 문제는 없는지 묻는 친근한 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학교교육의 경쟁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을 골라 집중적으로 지도해 부진아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이 시험은 학교 간 비교평가, 심지어 교사 간 비교평가를 부르는 악질적인 학력경쟁 시스템을 낳았다. 비약적인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마다 정규수업 외에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인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5개 교과로 도배를 했다. 평가의 결과가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비밀리에 통보되고 그 결과는 교사에게 압력으로 전해진다. 하루 한 시간의 보충도 모자라 옆 학교는 8교시를 하고 앞 학교는 0교시를 한데 우리도 좀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관리자의 발언은 은근하게 교사들의 피로를 쌓고 있다고 일선의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이러한 경쟁위주의 교육은 나아가 사회의 경쟁으로 이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수도권 명문대학과 지방대학의 양극화, 심지어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입시 양극화, 이런 양극화의 벽을 허물지 않는 한 교육현장에서 입시 위주 경쟁교육을 바꿔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협동교육을 강화해 동료애와 유대감을 기르고 상호 존중감을 함양해야 학교폭력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지금은 외면받고 있는 예체능 특기 교육은 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독서와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혁신학교를 늘리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에서 여러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학교폭력방지대책 연석회의를 만들고 ‘인권도시 광주’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인권도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학생을 학교폭력에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누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도시에서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폭력근절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 자아 존중감의 함양

아이들은 저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공부를 잘하거나 말을 잘 듣거나, 혹은 힘이 세어 그 폭력성을 대외로 떨치는 길 외에는 인정받을 길이 막혀 있다. 그 결과 공식적인 인정을 포기한 아이들이 인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폭력을 왜곡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축제를 준비할 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행복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성적 하나로 경쟁시키는 구도를 벗어나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어, 자아 존중감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다. 아울러 인권·평화 교육을 통해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자발적 신고도 활성화될 수 있고, 교사의 지도력도 높아진다. 이것이 가능해야 학교 안 폭력적인 권력구조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교칙을 만드는 데 학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모든 교사들이 일관되게 체벌이나 욕을 하지 않는 등 학생들을 존중해주려고 노력했다”며 “자신이 존중받아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며,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일선 교사의 주장에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겠다.

“학교폭력을 막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면, 학교폭력도 자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혁신학교인 용인시 흥덕고(이범희 교장)는 자아 존중감 함양을 학교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이유는 오랜 기간 소외가 누적되고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보는 관점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즉, 아이들을 통제와 지시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치유, 대화의 한 당사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이다.

혁신학교인 흥덕고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새로운 학생 생활문화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문화!’라는

슬로건으로 장기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시도하였다. 존중받아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가 먼저 아이들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학생들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만주 학생인권자치부장은 학교는 체벌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규칙을 어겨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교사와 해당 학생이 함께 등산을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로 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 자치활동도 강화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학교 규칙을 제정할 때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두발 제한과 강제 야간자율학습도 없애었다. 또래 관계에서 배려와 존중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또래 친구가 나서 해결을 돕는 ‘또래 중재인 제도’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비폭력 대화 연수, 평화교육 등으로 ‘다수의 착한 학생’을 양성해서 힘있는 소수가 학교 분위기를 주도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폭력 속에서 헤매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아직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결실은 차츰차츰 열매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3) 폭력에 대한 민감성 향상

가해 학생들은 왕따, 폭력을 행하는 이유가 그저 ‘재미있어서’라고 대답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 ‘힘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건 잘못이라는 인식,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폭력의 정의 및 개념, 폭력에 대한 다양한 수단 및 방법,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가해학생들에게 정확히 인지시키는 것도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교에 퍼져있는 폭력문화와는 달리, 교사들은 이에 둔감하며 문제해결을 하려는 의지는 잘 보여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 혹자는 ‘학교 교사의 성비 불균형으로 학생들을 휘어잡지 못하는 것이 폭력이 만연한 원인’으로 보는 그릇된 시각을 드러내기도 있다. 혹은 피해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할 때, 현장에 있는 교사가 언성을 높이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오히려 피해학부모가 학교의 눈치를 보는 사례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든 교사의 ‘상담 교사화’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아이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에서, 아이를 돌보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자세에서부터 학생들의 눈빛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별상담뿐 아니라 학급상담, 가족 상담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인력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상담 전문기관인 가톨릭상담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폭력이 폭력인 것을 깨닫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이 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4) 학교 민주주의 회복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전부터 있어왔을 터인데 이제야 주목하는 것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그 와중에 엉뚱하게도 학생인권조례를 닦하는 이들도 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학생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퍼져가면서 그동안 묻혀 있던 이런 일들이 그나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뒷자리 절반 학생이 엎드려 자는 교실에서 상위 몇 퍼센트의 학생들을 위한 입시위주의 수업, 입시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현실이다. 아이들이 이지러지고,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이런저런 또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굶을 대로 굶은 학교 폭력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차이를 존중하고 관용을 배우는 학교 민주주의의 경험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학교 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된 것이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구체화한 건 바람직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일선 학교에만 맡겨놓으면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학교가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중앙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학생 인권의식의 함양이며, 학교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식이란 나의 인권과 상대의 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괴롭힐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그 과정을 통하여, 풍부하고 명확한 인권의식을 배우고, 학교 민주주의에 대하여 성찰 할 수 있다면 학교폭력을 규제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공동체 회복

학교 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생활 관계의 축소판이 학교 학생들 사이의 관계로 보자면, 학생들 사이에도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권력관계에 따라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 뿐 아니라 학교 폭력을 돕거나 방관하며 개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기 초중고 7개 학교 학생 18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들은 힘이 세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지배자, 실력자, 추종자, 은둔자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지배자는 힘이 세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등, 반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이 많고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으로 흔히 ‘노는 아이’로 표현된다. 또래 관계의 강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정 반대로 권력을 가질 능력도 없고 힘을 추구하지도 않는 학생군은 은둔자 유형이다. 권력을 가질 능력이 있지만 힘을 추구하지 않으면 실력자로 분류되며, 권력을 가질 능력이 없으면서 힘을 추구하면 추종자가 된다. 응답자 중에는 추종자(50.8%)가 가장 많았고 지배자(27.2%), 실력자(19%), 은둔자(2.9%)가 뒤를 이었다(엄명용 성균관대 교수, 07)).

이들 학생들은 자신이 위치한 권력관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에 맞춰 지배자에게는 친구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법을, 영향력이 있는 실력자에게는 방어자 역할을, 추종자와 은둔자에게는 피해 사실

을 알리는 법을 가르치는 등 맞춤형 예방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고 엄교수는 조언한다. 그러나, 이들 맞춤형 예방교육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안 중에는, 가해, 피해 학생 모두가 우리 아이라는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안도 중요할 것이다. 경기도 여주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부모인 엄미현(40)씨는 언론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우리 아이들인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피해·가해 학생 모두 이번 일을 잘 극복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감싸주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가해 학생들도 또 다른 피해자 학생이기 때문이며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가해 학생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 대신 ‘관용과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에 범죄자처럼 낙인이 찍히게 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최소한 가출 청소년들이 잠깐이라도 피신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는 방안, 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고 충실히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 결론을 대신하여

분명한 사실은 처벌과 격리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대개 평범한 학생이고 특별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학교의 폭력구조가 그들을 가해자로 만든 셈이다. 지금처럼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등 학급 공동체가 무너지고, 기형적 권력구조에 의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으로도 강제전학 조처 등을 취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다. 가해 학생을 받아줄 학교도 없으려니와,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는데 적발과 징계에 적극 나설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선 학교현장에서부터 인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글은 2012년 1월30일 부산광역시의회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규남 부지부장께서는 1월 15일 부산 MBC 시사포커스에 출연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상파 첫 출연이었지만 노련한 말씀씨로 참학의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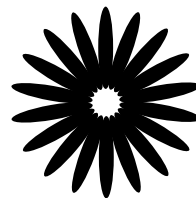


준명이의 일기

이준명 초등학교 2학년

노래방에서
가족하고 친척모두 노래방에 갔다.
나는 개똥벌레 99점, 그 다음 빙고 97점을 맞았다.
너무 너무 너무 아까웠다.
정만이는 100점, 97점, 100점을 맞았다.
나도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정만이 보다 노래를 더욱 잘할 것이다.
(2008. 1. 16)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았다.
제목은 로빈훗이다.
로빈훗이 홍길동이라 담았다.
엄마랑 나랑 다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바로 집에 간 것이다.
그래서 짜증났다.
(2008. 2. 9)



(준명이는 이미옥 회원의 자녀입니다. 현재는 초등 6학년인데 2학년 때 쓴 일기입니다.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한새학교에 와서 실력 한 번 ...)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청렴한 사회

손 새 벌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1)

얼마 전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남기고 가신 것은 부유한 사람들처럼 재산, 유품 등이 아닌 자신이 아끼던 책과 입고 있던 옷뿐이었습니다. 무소유로 살아오신 법정스님이 돌아가실 때도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으로 무소유의 가난한 삶을 평생 살다 간 두 분의 죽음은 '청렴'이라하는 것이 사라진 이 사회의 좌표에 대해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람을 뽑을 때 스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자격증이나 토익점수 봉사 활동 같은 스펙 쌓는 시간으로 학생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은 시간을 쌓는 것에만 의미를 두다 보니 그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스펙으로만 보려는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질적 이익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겠지만 누구나 자신 앞에 다가온 이익만을 중시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부도덕의 칼날을 어찌할 것입니까? 명문대 진학생만을 많이 배출한답시고 성적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에 차등을 둔다는 고교 이야기나 그것도 모자라 돈을 기부 받고 학생들의 성적을 고쳐준 이야기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사건 못지않게 보통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사회에 살아가는 학생으로써, 해야 할 일을 무엇이고 이 사회에 내가 공헌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에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리사욕이 없고 청렴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책이나 인터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인터넷 세대에서 살아가는 만큼 불법 다운로드나 타인에 대한 악플 방지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친구나 지인의 생일 때 값비싼 물품의 물건보다는 진정함이 묻어나는 따뜻한 편지를 선물을 하는 것, 비록 많지는 않지만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 하나 짬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고 자신의 작은 실천으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사회, 국회에서 싸

움이 없는 사회, 뇌물 없는 깨끗한 선거, 악플 보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이 오고가는 인터넷 이루어지지 않을 듯 한 이 일들도 우리의 작은 실천이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청렴한 사회가 곧 우리들이 만들어 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글짓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실천이라 생각 됩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대니 서 이란 책에서의 내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상에 낙원을 만드는 일은 그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긴장할 필요는 없다. 지상에 낙원을 만드는 일은 시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강의로 필요 없다. 다만 필요할 때마다 책임지고 정보를 찾아보면 된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이익이라는 적에게 무릎을 꿇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글을 계기로 앞으로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부정부패로 열거된 기사보다 깨끗한 사회로 변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나 청렴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의 기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별이는 김성희, 손재광 회원의 자녀입니다. 마이스터고인 기계공고에서 하고싶은 공부를 마음껏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풍물하러 왔던 꼬맹이가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학교에서 주최한 청렴글쓰기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각박한 세월 속- 살아있는 쉼터 같은 나무들의 전설-

요즘 회자되는 '나가수'식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전설이다"라고
이 책의 주인공을 표현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전설이었던 나무에게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고 지낸, 그
렇지만 잃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나무의사 우종영은 "나는 나무처
럼 살고 싶다"라고 자신의 바람대로 이 책의 제목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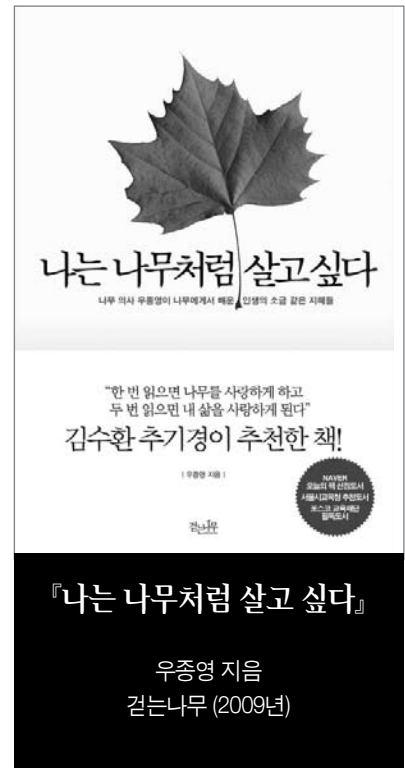
2001년 출간된 이 책을 읽고 감동먹은 나는 언젠가 참학과 연계한 어린이
날 행사 중에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아이와 함께 가운을 멋있게 적어주는 서
예가 선생님에게서 '나도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글을 받아와 표구를 해서
거실에 걸어놓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벌써 10년 세월도 더 지난 이 한 책을
중학교부터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고등학생 딸아이는 기
숙사에 꽂아두고 틈틈이 들춰 본다고 한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좋아진다고... 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어떤 나무의 전
설이 그리 좋은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 설 연휴에 다시 읽어보는데 페이지 한장 한장 넘기기가 아쉬워 종내는 밑줄을 계속 치
고야 말았다. 십년 전 그은 연필자국 그 위에도! 그것도 모자라 이 책 171쪽 <사랑한다면 '연리지'처럼>에 나오는 나무박사 임
경빈의 세밀화로 그린 <나무도감>을 펼쳐놓고 주인공 나무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찾아서는 딸아이더러 그려달라고 떼(?)를 쓰
기까지 했다.

이 책은 작가 우종영이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이 편 언덕으로 자기를 불러 준 나무를 만나 자신을 살린 나무를 위해 나무의사라
는 이름을 달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무로부터 배운 인생의 소금같은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작가는 소망한다. 우리가 결
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가치들을 기억하라고... 이 책을 통해 아니, 우리의 살아있는 전설, 나무라는 친구를 통해...

우리도 살면서 누구를 만나 그로부터 배우고 그로 인해 무언가 이름을 달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이책은 참으로 따뜻하게 오랫동안 전해준다.

(이번 달부터 새롭게 '책 이야기' 쪽지를 풍요롭게 해 주실 분은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손 재광 회원이십니다. 좋은
책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손 재 광 (국어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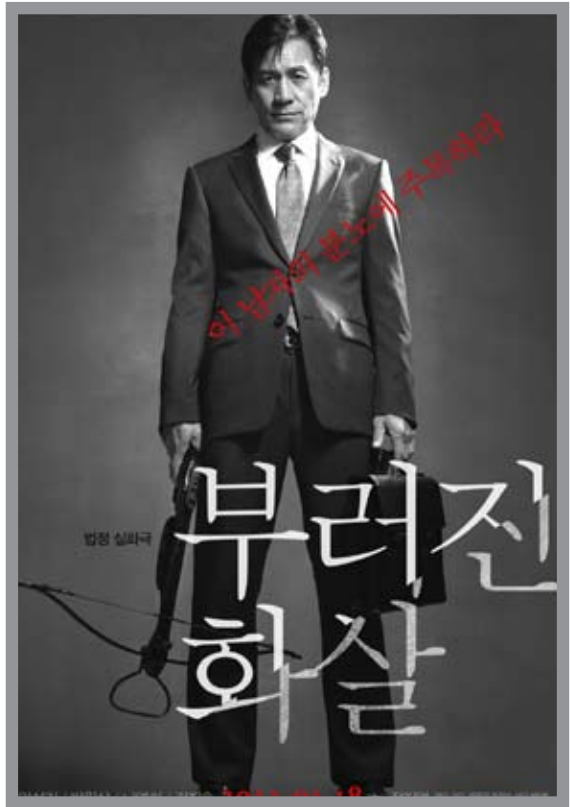
영화
이야기

부러진 화살을 보고

윤 혜 정 (대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27일, 롯데 시네마에서 영화를 봤다. 요즘 흥행한다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였다. ‘도가니’와 비슷한 사회비판적 성향의 영화라고 들었다. 나는 예술작품에 이념적인 가치를 집어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도가니’보다 더 흥행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었기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작품일 거라고 믿고 보러 갔다.

영화의 줄거리는 길지만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명확한 주제가 있었다. ‘무고한 남자의 분노와 부패한 사법부’. 그런 의도라는 게 확실히 보였다. 작중 주인공인 김경호는 수학교수로 95년 대입시험에 출제된 한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해고당한다. 이어진 항소심마저 부당하게 거절당한 김경호는 분노하여 평소 취미 삼아 하던 석궁을 들고 부장판사에게 ‘자신의 부당한 판결을 인정하라’며 위협한다. 몸싸움 끝에 판사는 복부에 부



상을 입고 김경호는 살인미수로 구속당하지만, 끝까지 자신은 화살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를 구하던 중에 과거엔 시위를 했지만 지금은 술독에 빠져 사는 양아치 변호사 박준이 사건을 맡게 되는 이야기다. 결국에는 사법부의 승리로 끝나지만 김경호는 교도소에서든 죄수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등 진실을 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를 보고 나서 왠지 불쾌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부패한 사법부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의 의도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작품을 보고 수학교수의 모습이 통쾌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고 주장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로서는 선동적인 영화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글을 쓰기 위해 영화 감상평을 찾아봤을 때도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영화가 고지식하고 무고한 한 남자와 씩어빠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싸움이야기라고 주장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나꼼수 지지자들을 타겟으로 한 흥행목적의 날조라고 말했다. 두 감상평 모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냐면 후자를 지지하고 싶다. 왜냐하면 영화 내용이 실제 사건을 너무 미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일어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용의자인 김명호 교수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학교 측에서도 김명호 교수가 재임용되지 않은 것은 학교에 해를 입혔고 연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석궁과 회칼을 들고 판사를 협박한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영화 속에서 문제가 되었던 와이셔츠의 혈흔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유전자 분석 감정 결과 다른 옷에 묻은 혈흔과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다.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에 이러한 허구와 진실을 판단하는 것은 관객들의 몫이다. 영화를 보고 나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실제 사건과 비교해보고 확실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화소모임에 온 혜정이는 객선희 지부장의 자녀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뒤풀이까지 같이 갔지만 영화에 대한 생각은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이란 무엇인가?

임 재 택

여기서 우선 사람들이 생태유아교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 핵심부터 제시해두고자 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고, 온 생명을 살리는 유아교육입니다.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유아교육이 바로 생태유아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자연의 순리와 조상의 지혜에 바탕을 둔 유아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잉태, 태교, 출산, 육아, 교육 등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임신 전후부터 취학전까지 태아, 영아 및 유아를 위한 태아교육, 영아교육 및 유아교육을 포함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 주고자 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신명나는 아이로 키워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어린 아이들을 아파트와 교실 공간에 가두어 ‘양계닭’처럼 키우는 반생태적 유아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바깥이나 자연에서 ‘토종닭’처럼 키우는 생태적 유아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콘크리트 유치원’이 아니라 ‘숲 유치원’ 방식의 유아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세상 사람과 천지 만물을 모두 함께 살리는 살림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생태유아교육은 아이와 엄마와 세상 사람과 천지 만물을 모두 함께 살리는 교육이므로 죽음교육이 아니라 살림교육이고, 가짜교육이 아니라 진짜교육이고, 거짓교육이 아니라 참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인간중심사상에 바탕을 둔 아동중심 유아교육이 아니라 생명사상 □ 생태사상에 바탕을 둔 생명중심 유아교육입니다.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을 위해 물러나듯이 생태유아교육은 기존 유아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유아교육입니다. 최근 생명위기시대, 산업문명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

고, 나아가 성장과 개발, 자본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기존의 유아교육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명중심 유아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자연친화적 유아교육이며, 아이를 한울님으로 모시는 아이살림의 유아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우리 조상들의 5천년 아이 기른 지혜에 바탕을 둔 ‘오래된 미래의 유아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사람과 지구생태계의 과멸을 가져온 구과학(old science)에 바탕을 둔 기존 유아교육이 아니라 나와 만인과 만물을 살리는 신과학(new science)에 바탕을 둔 살림의 유아교육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세상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신명나는 아이’들이 천지간의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신명나는 세상’으로서 우리 민족의 이상인 홍익인간·이화세계와 상통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육안과 심안과 영안이 모두 열려 있는 한울님인 아이들에게서 생명살림의 지혜를 배우는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유아교육은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필자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부터 움트기 시작한 생태유아교육은 부산대 유아교육학과와 부산대 부설 어린이집에서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적용을 통해 계속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생명위기시대, 기후변화시대, 아이살림·생명살림의 지속가능한 유아교육으로 진화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달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임재택의 생태유아교육 이야기’ 첫 이야기입니다.

임재택 교수님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1979년부터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95년 부산대 보육종합센터 설립을 주도했고, 부산대 부설 어린이집 원장을 12년간 맡아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왔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생태유아공동체 대표,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회장, 숲유치원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유아교육법 제정을 비롯한 유아교육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서종호 회원을 만나다

이번 달 회원탐방의 주인공은 서정호 회원이다.

서정호 회원은 금성중학교 영어교사로 현재 전교조 부산지부 남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월 하순 참학 사무실에서 있는 서정호 회원과의 인터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Q: 먼저 참학에 가입하시게 된 계기를 듣고 싶어요.

A: 참학에 가입했던 2007년 즈음에 저는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정책 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 개혁 연대운동을 참학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가입하게 되었어요.

Q: 전교조와 선생님의 인연은 언제부터였나요?

A: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386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의 대부분은 1980년대 중고등 시절을 전교조 선생님들의 활동을 보면서 보냈어요. 그때 생긴 사회에 관한 다양한 인식들이 대학까지 연결되었고 또 그것이 교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교조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Q: 여러 시민 단체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전교조에도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없다는데..

A: 요즘 정부에서 교사들을 많이 뽑지 않으니깐 당연히 학교마다 젊은 교사들이 적습니다. 그러니 기존 선생님들이 여러 단체 활동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현실과도 연관이 있어요. 현재 대학 환경이 자신과 주변의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 들어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요즘은 대학 1년생을 고등 4년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신의 주변으로 눈을 돌릴 겨를이 없는 거죠.

Q: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함에도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시험 위주의 교육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원래의 목적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인데, 우리 아이들은 실용 영어가 아닌 점수를 높이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수영을 교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울 뿐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죠.

저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문법은 좀 틀려도 두려움 없이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테스트에 부담이 없는 흥미 위주의 교육 즉, 말하기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를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A: 현재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내용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마음먹고 공부하려고만 하면 단시간에 마스터가 가능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말하기 교육을 위해 일주일에 두 세 문장을 정해 놓고 가족들과 함께 입에 완전히 붙도록 반복해서 익힐 것을 권합니다. 처음엔 분량이 적은 것 같지만 꾸준히 쌓이면 대부분의 영어 표현을 이해하고 말하기에 충분해 집니다.

영어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왕따 문제가 중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중학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께 그 원인을 여쭙 봐도 될까요?

A: 중학생들을 우스개 소리로 정상적인 정신병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이들의 생각과 몸은 분리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학생들은 덩치만 커졌지 장난과 놀이를 좋아하고 집중도가 높지 못한 초등생들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소통과 놀이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고등학교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학습만을 강요하니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학교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A: 저는 현재 남자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중등 교사 생활만 17년을 했는데요, 보통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 아이가 사춘기라서 힘들어 한다고들 하세요. 제 생각엔 아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힘든 것이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이 힘든 거죠. 아이들은 힘들지 않아요.(웃음)

부모님들이 중학 시절을 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예비 단계로만 보고 공부만을 강요하니 신체적 정신적으

로 자유분방한 아이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요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단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아이의 성적과 공부에만 관심을 두니 아이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얘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없게 됩니다.

Q: 선생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지요? 선생님만의 교육 철학을 듣고 싶어요.

A: 저는 초등 3학년인 큰 애와 네 살인 작은 애, 남자 아이를 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가 무엇이든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부모들이 경제력이나 학력이 부족해 아이들을 완전히 방임했다면 지금은 알면서 방임하는 거죠.

제 주변의 전교조 선생님들을 보면 자신만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해야 인정합니다.

우리(전교조 선생님들)가 우리의 자녀들을 타인이 보기에도 훌륭하게 키우면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교육 철학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Q: 선생님의 학창 시절은 어떠했나요?

A: 저는 내성적이고 책만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를 썼는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애늬은이였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혼자 자취를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는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게 저도 모르는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느 사이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고 덩달아 직함도 많아지더군요. 내성적이었던 제가 사회성이 넓어지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생기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Q: 참학에 한 말씀 해 주세요.

A: 최근 대부분의 시민 단체가 노령화로 인해 활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조직원들이 ‘언제까지 이 활동이 유지될까?’, ‘조직이 좀 더 활성화 될 순 없을까?’하는 당연한 고민들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 조직이 갑자기 그리고 대단히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저는 참학의 존재, 그 자체가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존재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비록 미약해 보이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음이 힘들지만, 우리 교육계에 쓴소리를 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었음 합니다.

여러 단체들이 다 없어져 우리 사회에 비판적 목소리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손실이 되

지 않겠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교육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다 보니 인터뷰는 예정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길어졌다.

시종일관 흥미롭고 진지했던 오늘의 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평소 서정호 회원의 노력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경쟁과 혼란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을 어루만지는 서정호 회원의 희망 메시지를 전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조만간 현 교육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꾸준히 시정하려고 노력해온 우리들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서정호 선생님은 2011년 1년동안 ‘교단일기’라는 꼭지에서 만난 분이다.

우리지부에는 서정호 회원이 3명이다. 이 지면의 주인공과 신영희회원의 남편, 그리고 싱글맨 서정호 회원이 있다. 최경희, 김경희 회원이 두 명씩이고....

좋은 이름들인가보다... 오래 오래 참학에 이름이 남으시길..)

〈정리: 신지원〉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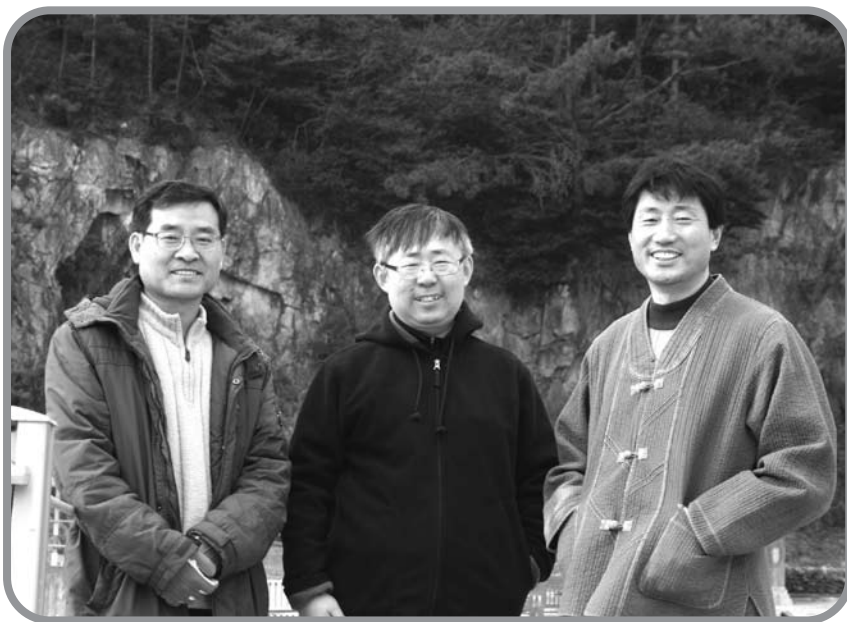
▲ 부산시의회 주최 '학교폭력 토론회' 이규남 토론자 참여

거제. 통영 사진들...



활동사진

거제. 통영 사진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권한다

노영민 (신정고 교사)

보통 10시쯤 자서 새벽 4시 반 이쪽저쪽으로 일어난다. 일어나서 이런저런 운동을 하는데 중심은 절 운동이다. 115배. 올해로 4년째인데 작년 한해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퇴근길은 산을 거쳐서 하려고 애쓰는데 작년에는 정확하게 300번 산을 올랐다. 학교 뒷산과 마을 산 위주다. 이런저런 말씀들 가운데 ‘자랑하시는가, 팔자 좋으시군’,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건 괜찮은 팔자도 팔자지만 좋은 습관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부모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는 내용의 영어 문장을 예전에 외운 기억이 나는데, 이건 단순히 먹이 확보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침 지하철, 앓은 사람의 칠팔은 졸고 있다. 아니 자고 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음에 틀림없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어떨까? 땀하고 흐릿한 머리로 일이 잘 될까, 기쁘고 즐겁게 공부할까?

우리 집 아이들은 중학교 마칠 때까지 10시 전에 잠자리에 꼭 들었다. 시험 치는 기간에 도 그랬다. 시험공부 꼭 더 해야 한다면 새벽에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일까, 나는 우리 집 아이들을 아침에 두 번 이상 불러서 깨운 적이 없다. 아침에 깨우고 밥 먹여 학교 보내는 일이 전쟁이라는 부모들을 많이 보는데 이해는 하면서도 마뜩지는 않다. 이건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노는 것을 당연시하는 부모,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이다.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다르긴 하겠지만 전기가 발명되기 전 몇만 년, 몇십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은 당연히 아침형 인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인간 아니었나.

낮과 밤이 거꾸로 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물론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24시간 영업, 심야 영화, 심야 학원, 야간 노동 등 ‘자연 질서’에 반하는 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지 않나. 돈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가. 밤에 영업 하는 곳이 잘 없어서 불편하더라는 얘기를 유럽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했다. 밤에 문 닫고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하여튼 유럽의 경우를 보면 자본주의가 심야 내지 24시간 영업의 주범은 아닌 것 같다. 어디가 정상인가. 어디가 더 지속가능한 사회이고 어디가 더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인가. ‘日出而作 日入而息’하는 유럽인가 ‘日出에도 日入에도 而作’하는 우리인가. 밤 10시, 11시에 대형 할인 마트에 초등 아이를 데리고 장보러 온 젊은 부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 이해가 되면서도 지극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아이들이 자야할 시간, 그래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데 ...

우리 학교는 8시까지 등교한다. 10분, 20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그럴 것이다. 20분간의 아침 독서(영어 듣기) 그리고 짧은 학급 모임 뒤 8시40분에 1교시를 시작한다. 0교시라 부르던 아침 보충을 우리 학교는 안 한다. 1교시 시작하기 전 아침 독서(영어 듣기) 시간과 학급 모임의 분위기는 어떨까? 아침의 상쾌한 공기처럼 맑은 눈이 빛나는 시간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이럴밖에서 뭐 하려고 학교 일찍 오게 했노, 2,30분이라도 더 자게 할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다.

하루 일과 중 학생들은 언제 많이 졸까? 경험에 기반한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점심 먹고 난 뒤인 5교시인 것 같다. 그 다음은? 1교시가 아닐까 싶다. 둘 다 밥 먹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나른한 식곤증 탓인가? 5교시는 그렇지만 1교시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내가 보기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 힘들게 일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담임교사 옆에 머리를 조아린 아이가 있다. 지각 때문이다. 두 분 다 직장을 나가야하는 부모님이 깨우다 깨우다 어찌지를 못해 자명종에 맡겨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 연락도 없이 학교에 아이가 오지 않아 걱정이 된 담임이 전화로 연락을 한다. 그때서야 일어난 아이는 아직 잠 묻은 목소리로 학교 가겠다고 말한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식구 누구와 함께 늦잠 자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이들 ‘낮밤 거꾸로 생활’에는 거의 강제로 실시되는 소위 ‘야간자율학습’(야자)도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야자에 대해 이런저런 입장들이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거의 강제로 시키면서 ‘자율’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장 14시간의 장시간 강제 학습노동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반대의 큰 이유이다. 10시에 학교에서 나온다면 설령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몇 시가 되어야 잠자리에 들겠는가.

나폴레옹은 하루 4시간을 자고도 거뜰하게 큰일을 했다고 한다. 나폴레옹이 잠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코르시카의 어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광고를 본 적도 있다. 그럴 것이다.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폴레옹은 아마 4시간만 잤을 것이다. 그런데 단언컨대 나폴레옹은 틀림없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을 것이다. 지금의 야자 방식을 고수하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한다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낮밤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니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야간노동이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발표가 계속해서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너무나 무덤덤하지 않는가. 정말 간 큰 사회로구나 싶은 생각

이 절로 들 때가 나는 있다.

지금 학교에는 눈빛이 또릿또릿, 머리가 상쾌해야 할 낮에는 병든 닭처럼 눈이 흐릿, 눈꺼풀이 축 처지고 머리가 멍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눈빛이 밝아지고 머리가 살아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래서야 만세의 사표라 존경받는 공자님이라도 무슨 수가 있을까 싶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공부 잘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 있으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키우는 일이라고. 그러면 자연히 공부도 잘 하게 될 것이라고. 아울러 학교 과한 뒤 공부 하고 안 하고는 제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맡겨두고 학교만이라도 정상 일과 운영을 하자고. 강제로 떠먹이는 ‘강제’보충과 ‘강제’야자 당장 그만두고 학생들 자율 선택을 철저히 보장하자고. 나의 이 얘기를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느냐며 뜨악한 표정으로 보시는 분에게는 쫓불 시위가 한창일 때 나온 학생들의 절규,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그 말의 의미를 곰곰 새겨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예전에 쓴 나의 졸시 한 편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친다.

가로등, 네온사인 그만 켜고 으쓱한 곳 좀 남겨 두자
개들 한쪽 다리 들고 망설임 없이 오줌 누고
벌레들 편안하게 노래하다 잠들고
젊은 연인들 담벼락에 붙어 서서 아쉬운 사랑도 좀 나누게

불빛 회황한 아래서는 만 생명들 덩치만 키우지 알갱이 여물지 못한다
단풍도 제대로 들지 않는다
아이들 성장 호르몬도 밤잠 깊이 잘 때 나온다 하지 않던가

생산을 위해서는 어둠이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어두운 곳이 남은 자식들이다
밝은 대낮에 열심히 일하고
어둠이 내리면 차도 컴퓨터도 텔레비전도 끄고 쉬다가 잠을 자자
어둠 속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생산을 준비하자
별도 마음 놓고 빛나게 하고

(졸시 <밤낮이 없는 불임의 도시에 대한 항변>)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교사 이야기’ 꼭지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좋은 글들을 발표하고 계시는 노영민 회원의 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 (3)

화장실 화장지 사건

이 규 남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도농복합지역이라 시내 학교보다 어려운 아이들이 참 많다.
특히 조손가정이 많고 결손가정이 시내 학교들보다 비율이 상당히 높다.
또 학교가 위치한곳과 집들의 거리가 멀어 많은 수의 아이들이 버스 통학을 하는 편인데
매일 매일 버스비를 받아 올 수없는 어려운 아이들이 몇 km를 걸어서 통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강동동 벌판을 가로질러 명지로 가는 길가에는 등교시간이면 손을 드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고 그 아이들
을 태우고 오면서 물어보면 거의 차비가 없어서 지나는 차량을 얻어 타고 간다고 한다.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 그게 우리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할 몫이 아닌
가?

학교화장실에 화장지를 넣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한건 작은 것에서 부터 바꾸어나가야 겠다고 생각하든 차에
아들 녀석이 화장지를 사야 된다면 으 엄마에게 500원을 받아가기에 물어봤다.

Q: “아들! 학교에 화장지가 없나? ‘

A: “예, 화장지 없어요.”

Q: “화장지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져가는데?”

A: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요, 매점가면 두루마리 화장지 1개 500원해요.

그거 사서 쓰구요, 어떤 애들은 콕티슈 쓰기도 해요.

선생님도 아이들 한테 화장지 얻어 쓰기도하고 그래요. “

Q: “그러면 화장지 살 돈이 없는 그런 친구들은 어쩔데?”

A: “친구들한테 얻어서 쓰고 아님 친구들 거 몰래 쓰다가 걸려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대체로 휴지 좀 달라고 하면 잘 주는 편이에요. “

도대체 화장지를 비치하면 돈이 얼마나 들기에 학교에 화장지를 들고 가야하고 화장지를 가지고 빈부의 격
차를 아이들이 느껴야 되나? 화장지를 비치하고 있는 학교를 알아봤다.

남.녀 공학이면서 학생 수가 비슷한 당감동에 있는 K고 체육부장 선생님이 화장지를 관리하신다 해서 전화로 문의해 보았다.

한해 65~80만원이면 충분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허투로 써서 조금 많이 쓴다 싶어도 일시적이고 조금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신다.

그리고 화장지는 화장실에다 걸어놓는 게 아니라 교실에다 걸어놓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신다.

“이렇게 학교에서 화장지까지 내어주는데 함부로 쓰고 낭비를 해서 돈이 많이 든다면 학교에서 화장지를 안내어놓겠지요? 그러니 우리 아껴서 쓰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아껴쓰고 혹 낭비하려는 아이를 보면 아이들 끼리 통제를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정도는 잘 하는데 어른들이 해보지도 않고 걱정만 많이 하죠.

우리학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 별걱정을 다했다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화장지 비치 건을 안건으로 발의 하니 교사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교원위원 학생부장): “위원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아이들이 화장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함부로 써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화장지로 인해 교실은 얼마나 엉망이 될지 청소만 하다가 하루 다 보낼 겁니다.”

(학부모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화장지로 장난이나 치고 하면 오히려 물건을 아껴쓰지 않고 낭비하는 습관만 더 생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집에서 쓰는 화장지 하나씩 가져오는 게 무슨 부담이 된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장선생): “화장지 비치기가 꼭 필요하면 운영위원들이 돈을 모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학교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학부모위원들이 모아서 한번 해보시지요.”

(이규남): “교장선생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해에 백 만원도 안 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공 기물은 아껴서 써야 된다는 걸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버스비가 없어서 수키로의 거리를 걸어서 오는 아이도 많은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인데 화장지 땀에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올린 안건내용을 보면 지금 많은 학교에 화장지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서 보내온 각학교 납품내역을 보면 학생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우리학교와 비슷한 규모의 학교를 보면 70만원 내외 정도면 한해 아이들에게 화장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 번더 생각을 해 보시지요. “

(교장선생):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낭비를 하든 허투루 써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 주고 싶지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어쩍니까?”

이후 몇 차례의 여러 의견들이 왔다갔다했다. 특히 학부모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 기가 찰 노

룻이다.

무조건 교장선생이 말만 하면 무조건 예스맨이 되니 나 원 참!

아무래도 오늘 안건은 잘못 낸 것 같다. 모두 반대를 하고 나 혼자서 싸우기는 너무 힘이들고 가부를 묻는 거수를 하면 깨질 것이니...

(이규남); “교장선생님, 그리고 위원님 도대체 아이들한테 화장지 하나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이런 운영위원을 꼭해야 되는지 회의가 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저는 힘이 듭니다. 저의 지금 기분으로는 더 이상 회의에 집중할 수가 없어 일어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화장지를 비치해 줄 수 있습니까?

돈만 만들어 오면 가능하지요? “

(교장선생); “예, 돈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얼마든지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저도 답답합니다. 돈만 있으면 위원님 하자는 걸 모두 다 할 수있습니다. “

(이규남); “예, 제가 지금 가서 돈 만들어 오겠습니다.

교육감한테 가서 우리아이들 똥 닻을 종이 값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똥 닻을 종이를 못 가져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 똥은 닻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교육감 목을 비틀어서라도 똥 닻을 종이 값 받아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만 일어 날랍니다. 교육감 퇴근 하기 전에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바깥으로 나와 생각하니 큰소리는 쳐 놓고 막막했다. 교육감이 만나주거나 할까!

설혹 만난다면 뭐라하지? 차를 몰고 집 쪽으로 오는데 이럴 어쩐다!

순간 핸드폰이 울리고 받으니 행정실장이다.

“위원장님 저 행정실장입니다”

“아, 예, 무슨 일로 예?”

“위원장님 나가시고 다시 논의해서 화장지 달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러니 교육청에 안 가져도 된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마음 상하셨으면 마음 푸시라고 전화 드렸습니다.”

젠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내 속을 뒤집어놓고야 되는가!!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이후에 교장선생은 댄 학교로 가셨는데 부임 하자 말자 아이들 화장실에 화장지부터 비치 했다고 들었다.

화장지 값보다 교육적인 가치가 훨씬 크다는 사실과 그리 큰돈이 들지 않는 다는걸 알았다는 걸까?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는 계속됩니다)

조중동 방송 댓가 뇌물,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입법 날치기 용역’ 한나라당 문방위원 전원 수사하라!-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박희태 돈봉투,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 돈봉투, 돈봉투, 돈봉투, 술한 돈봉투 사건으로 정당이 간판을 바꿔달려고 하는 이때에 참으로 경악할 만한 돈봉투 사건, 정확하게는 ‘뇌물’ 사건이 또 터졌다.

어제 아시아경제신문에 따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최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지난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보좌역으로부터 직접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당시 문방위 소속 A 의원 보좌관은 26일 기자와 만나 “정 보좌관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최시중 위원장이 (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전해달라며 500만원을 건넸고, 봉투에는 5만원짜리 신권지폐로 100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일자리 2만개 창출, 여론다양성,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이라는 온갖 거짓말로 조중동방송을 날치기시킨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시 문방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로비’를 한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돈봉투를 건넨 시점이 불법 특혜의 총아인 조중동 방송을 탄생시킨 미디어법 국회 날치기 통과 직후라는 점이다. 이는 조중동 방송에 대한 날치기 댓가인 ‘입법 답례 뇌물’이자 야당과 언론인들을 짓밟은 ‘입법 날치기 용역비’인 것이다.

정용욱 전 방통위 보좌역이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로 온갖 심부름과 방통위 실세노릇을 해왔지만 EBS 이사 선임 관련 수억원의 로비 의혹수사와 이번 입법 로비 답례 뇌물 의혹까지 해외로 도피한 정용욱은 비리의 깃털일 뿐 모든 화살의 과녁은 몸통인 방통위원장 ‘최시중’으로 모아진다.

이번 뇌물 사건은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만이 아니라 조중동 방송 탄생을 위해 입법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나라당 문방위 국회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가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당시 언론악법 날치기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 8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물가지지 않았고 날치기 통과를 위해 몸싸움과 대리투표, 재투표의 돌격대로 자임했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 조선일보 출신 진성호, 강승규, 구본철, 김금래, 성윤환, 안형환, 이경재, 이정현, 정병국, 주호영,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까지 뇌물 수수 의혹 대상이자, 검찰 수사대상이 되어야한다.

최시중은 정연주 전 KBS사장의 대법원 무죄판결에도 책임지겠다고 한 공식 발언마저 사퇴거부로 버텼고, 정용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터진 비리사건이라 이번에는 또 어떤 오리발을 내밀지 그동안의 전례로 충분히 예측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도피한 정용욱에 대한 해외 공조 수사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검찰의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조중동 방송 입법에 대한 로비자금인 뇌물을 지원한 출처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2012년 1월 27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강화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제 7년 ‘유명무실’

일선학교 경비부담 이유 인턴 채용... 상담 지속성 떨어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상담교사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상담교사 확대에만 급급하다 보니 일선학교들이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전반에 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후, 2005년 9월부터 일선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부산에서도 지난 2005년 9명이 전문상담교사로 채용된 후 지난해까지 중·고교와 교육청 위(Wee)상담센터에 모두 59명이 배치돼 근무중이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일선학교 배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부산지역 622개 초·중·고교에 모두 배치되기엔 태부족인 실정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이슈로 부상하자 교과부는 16개 시·도교육청 별 조사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며 제도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학교폭력의 예방적 기능이 중요시되자 또 다시 전문상담교사제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일보/ 노정현 기자/ 2012. 1. 31

“NEAT(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저소득층 자녀엔 무거운 짐”

올 대입 수시 평가자료 활용, 컴퓨터 활용 말하기 시험 등 장비 마련에 대한 부담 클 듯

올해부터 정부가 교육현장에 본격 도입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는 새로운 짐이 될 것이란 우려가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NEAT를 올해 대입 때부터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015년부터는 수능시험의 영어시험을 아예 NEAT로 대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파급력을 가진 NEAT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수험생들에게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김정숙 정책실장은 “학교 현장에서 당분간 이처럼 크게 새로워지는 시험방식에 대한 시설과 공부환경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런 수요를 발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이는 저소득층 수험생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제신문 /조봉권 기자 bgjoe@kookje.co.kr/ 2012-01-26

수영구 “반값 교복 法 만들자”

교과부 해석 혼란에 사업 좌절, 학부모·교육청·학교단체 동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제동으로 ‘반값 교복’ 사업이 좌절된 부산 수영구가 관련 법 개정엔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영구는 25일 “교복지원사업이 조속히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 · 교육청 · 학교와 함께 국회에 관련 법령 제정을 촉구하고, 교과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영구는 조만간 교과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지역 교육청과 학부모 · 학교에도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영구의 계획에 학부모단체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정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실장은 “교과부가 같은 법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하며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의 사업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업인 만큼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학부모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관할 해운대교육지원청도 “수영구, 교육청, 중학교 6곳이 양해각서까지 맺고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했는데 곤란하게 됐다”며 “수영구에서 진행상황을 듣고 난 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2012-01-25

“공립 8% ... 학부모의 선택권 없어”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신설안이 부산시의회에서 축소된 것은 유치원을 아직까지 공교육의 영역으로 바라보지 못한 미숙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이라는 이익단체가 아닌 시민들 편에서 공립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공립유치원 설립안의 의회 통과 과정을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의 김정숙 집행위원장은 공립유치원 신설안을 축소한 일부 의원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립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총원율이 70% 밖에 되지 않는데 공립을 왜 짓느냐는 논리는 학급당 정원을 40명으로 한 것이고, 공립유치원 기준(급당 29명)으로 할 경우 90%가 넘는다”며 “요즘은 초등학교도 급당 정원이 30

명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선택에 맡기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립과 사립이 각각 절반 정도라면 학부모의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부산은 공립 비중이 8%밖에 되지 않아 학부모의 선택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 학부모의 선택에 맡기려면 오히려 공립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내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교육의원들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만큼 시민의 여망을 인식하고 지난해 축소 · 삭감한 공립유치원 신설 예산을 올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2012-01-08

〈학부모 알림〉

개념 있는 체험 학습과 여행, 주말 학교와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한새학교가 문을 엽니다

◎ 한새 어린이학교

초등학생 탐구형 현장체험학습 - 주제별 일관 학습

◎ 한새 청소년학교

중, 고등학생들의 자기이해, 공동체 의식 강화, 미래사회탐구, 직업탐색을 돕는 자아 성장 프로그램

◎ 한새 지리산탐험학교

지리산 자락의 산촌생태마을에서 한새학교가 진행하는 역사탐험, 생태탐험, 생명탐험, 지질탐험, 문화탐험 등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

◎ 한새 볼런투어

봉사활동과 청소년 체험여행이 혼합된 프로그램

◎ 한새 에코힐링투어

학부모를 위한 몸과 마음의 활력 충전 프로그램

◎ 한새 원화랑단 주말학교

초등학교 교과서 체험 학습단 - 체험학습과 독서, 글쓰기 등을 통합하는 학년별 연간 프로그램
(3학년 ~ 6학년) 10명 1조 / 학년당 최대 4개조

◎ 특색 체험 프로그램

※ 한새어린이여행작가클럽 ※ 한새어린이기자학교

한새학교에서 마련하는

2월, 3월 체험학습 프로그램



2월 11일 (2주 토요일) 포항제철에 가면 누구나 철이 들까요?

한새어린이학교

- ◎ 포항제철 견학 - 포스코 역사관 - 포스텍 (포항공대) 둘러 보기 - 로보라이프뮤지엄 로봇체험
- ◎ 참가비: 초등학생 45,000원 / 성인 47,000원
- ◎ (학습요소) 우리나라 제철의 역사, 철강 제품의 종류, 인류문명과 철의 관계, 포항제철 창립사 등



2월 24일 ~ 26일 (2박3일) 녹두장군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 발자취를 따라가는 역사기행

- ◎ 고부 관아 옛터와 말목 장터 - 만석보 헐파비와 만석보 유지비 - 무장기포터와 전봉준 생가터
- 동학혁명 모의탑과 무명농민군 위령탑 - 백산성(백산봉기터) - 전봉준고택과 전봉준단비와 단소(묘역)
- 황토현 전적지와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 - 삼례봉기 역사광장 - 전주성과 전주 동학혁명기념관
- 공주 우금티 고개 - 순창 전봉준 피체지(피노리 마을)
- ◎ 참가비 초등 고학년 ~ 중학생 255,000원 (2박3일 체험여행 경비 일체)
- ◎ (학습요소) 동학에 대하여, 동학혁명의 배경과 의의, 동학혁명이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 등



2월 28일 (수) 3.1 운동의 의의와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

한새어린이학교

- ◎ 독립기념관 - 아우내 장터와 병천 순대 - 유관순 생가와 매봉교회 - 유관순 열사 사적지 (추모각, 초혼묘, 봉화탑) - 유관순 열사 기념관 (벽관체험) - 매봉 정상에서 햇불과 만세 체험
- ◎ 참가비: 초등학생 52,000 원, 고생 53,000원 성인 55,000원 (최소 출발 인원 (30명) 적용)
- ◎ (학습요소) 3.1운동의 배경과 영향, 일제강점기 선열들의 저항정신, 유관순 일대기 등



3월 10일 (토) 지리산 둘레길 제 5코스에서 만나는 생명의 힘. 자연의 힘. 가족여행/ 에코힐링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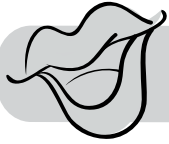
- ◎ 지리산 둘레길 제 5코스 (동강마을 - 수철마을) 걷기와 산책 거창 사건 추모공원
- ◎ 참가비: 학생 23,000원 성인 25,000원 (점심 각자 준비)
- ◎ (학습요소) 지리산 빨치산과 남부군, 산책거창사건, 마지막 가야의 발자취 - 전구형왕릉과 왕산

프로그램 및 회원 가입 문의, 참가 등록 안내

참학 부산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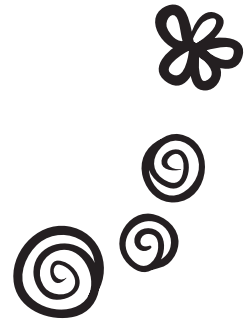
☎ 051-556-1799

담당: 장유성 교육부차장 010-2803-7380



1월 이렇게 보냈어요

- 1월 2일 수영구의회 방문(허재규, 강혜란의원) - 수영구 교복값 지원 문제 (이규남, 김정숙, 장현숙)
- 1월 3일 학비노조 문제 논의-전교조
- 1월 4일 임원회의
- 1월 5일 교육희망넷 운영위원회, 교육행정규제 심의위원회의
- 1월 9일 학생생활규정 소위원회-전교조 (김정숙)
김종철 교수 강의- 카톨릭 센터/ 박선희, 장유성, 김정숙: 한새전단지 홍보
- 1월 10일 급식운동본부 회의/ 친환경 급식유통업체와의 간담회 /
신영복 교수 강의- 연제구청/ 장유성 한새 전단지 홍보
- 1월 12일 식생활 교육부산네트워크 이사회-참학
- 1월 13일 학비노조 전국 투쟁-부산교육청 앞 (김정숙 투쟁사)
mbc 시사포커스 '학교폭력' 녹화- 이규남
편집회의- 신지원, 박선희, 김정숙/
시민단체 신년하례회-민주공원(박선희, 김정숙)
- 1월 15일 회원만남의 날- 거제외포 및 통영
(박선희, 윤영근, 권용욱, 김정숙, 김혜례, 이미옥, 최은화)
- 1월 16일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김정숙/ 설 수익사업 유과 도착 판매시작
- 1월 17일 전국이사회-대전 (박선희)
- 1월 19일 학교혁신 워커샵-시의회/ 식생활국민네트워크 이사회-서울(김정숙)
- 1월 26일 영화소모임 '부러진 화살' / YWCA 총회 참석 (김정숙)
급식운동본부 회의-박선희
- 1월 30일 학교급식지원센터 워커샵-부산시의회
학교폭력 토론회-부산시의회-이규남 토론자,
박선희, 김정숙, 장유성, 배종만 참석
- 1월 31일 생태사회부산포럼 -제1차포럼(민주시민교육원)



1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류봉심, 허미경(2개월), 채승영(2만), 김정숙(2만), 박옥화(2만), 김옥순(2만), 이금숙(2만), 장선희(2만), 신영희, 박성미, 이행봉, 김기영, 조금제, 박은숙, 송경희, 홍동희, 박희옥(2개월), 이광호, 김윤자, 이일권, 공외정, 류정애, 김종철(2만), 윤내경(2만), 윤신옥, 김형선, 배선임, 최경희(a), 조명숙(3만), 김정원, 문재경(5천), 김은주, 윤연섭, 조석현, 노희정, 하주연, 맹일영, 이미연(3개월), 전순실, 손진숙, 홍정희, 이남숙, 최경희(b), 이희주, 정윤숙, 최한, 이재희(5천), 고혜경, 신수자, 최승희, 김현준, 심미숙(2개월), 유은정, 김수영, 이혜숙, 양윤자, 김경선, 심성보, 곽차섭, 박미순, 김경희(a), 서기철, 박무준, 정수련, 황선애, 허운영, 함현주, 지영경(5천), 김충찬, 황송미, 정동희, 고창민, 황보덕, 오봉숙, 김동철, 유명희, 김석준, 곽태순, 장순옥, 이종명, 장희정, 장지숙, 임석규, 이영주(2만), 신석열(2만), 김태만, 박유미, 송명희, 곽은순, 장유성, 신지원, 허미자(2개월), 김준연, 이승중, 민문식, 김익수, 이성하, 정재천, 김원재, 장동제, 김진향, 이규남(2만), 임주연, 송기수, 송철동, 이선애, 김경애, 주우명, 권서용, 김경숙, 배종만, 백미영(5천), 문명숙, 송승희(3개월), 김법기, 최은화, 윤은주, 서인석, 강순금(2만), 임창영, 김정열(5천), 이정형, 강정아, 손건태, 조원국, 남광우, 서권석, 최점순, 천갑경, 김춘미, 이진희, 백점단, 안종기, 최정홍, 김연주, 황은옥(2만), 서정호(a), 문혜정, 장말선, 김유순(3개월), 백성희, 최정미(3개월), 서정호(b), 김지원, 편국자, 박외숙, 정연재, 문영식, 우성만, 왕병구(2만), 강은조, 서경애, 노기섭, 장현숙, 김영미(2개월), 김경준, 김상현, 김현봉, 고내현, 노영민, 부지환, 이재홍, 김혜례, 강재성, 최중수, 박덕수, 문인숙, 이병숙, 윤영근, 권인근, 이미옥, 김성희, 박귀남, 김재홍, 성인심, 배문주, 손희정, 권영순, 임영선, 김경희(b), 박준건, 강아련, 김옥량, 김성미, 이수진, 이혜영, 서석태, 조정화, 주정현, 김영희(b), 이주현, 편국자, 김영숙, 이정인, 최지선

■ 1월 결산 보고

수 입	지 출 내 역	지 출 금 액	이 월 금
이월금 3,866,541	중앙 분담금	512,790	4,769,233
	전국회의비	70,000	
회비수입 2,145,000	사무실 운영비	1,135,080	
후원금 100,000	상근자월급	500,000	
	소식지 발송비	104,380	
이자수입 442	소식지 인쇄비	270,000	
기타수입 1,524,500	사무실 임대료	275,000	4,769,233
수입 합계 7,636,483	지출 합계	2,867,250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 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계좌번호: 040-12-105061-8 부산은행 참고교육부모회부산지부)

- 기타수입에는 유과판매 수익금 988,000원과 유과대금 선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무실운영비에는 회원만남의 날 지원금 100,000원과 유과대금 지급 및 인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후원금 (100,000원)을 내 주신 장현숙 님 감사합니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독서는 아이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주요사업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설명서 발표, 서명·결원운동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학교내 돈종루 없애기 운동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학교의 부당참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좌
- ◆학교운영위원회 논의상단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교육감좌·소모임 활동

전국 각지부별 실행 교육강화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감좌
- ◆소모임활동 : 교육문제연구, 역사탐방, 동화모임, 미술모임, 글쓰기, 풍물 등
- ◆부모역할 훈련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지부별 협력교육 감좌

출판·정보활동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은 '학부모신문'발간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신문회원, 일원교육자료집 발간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활요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을 없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담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시 진구 앞길1동
352-2번지
(아마라피아노 3층)
문의 : 051)636-1799

<http://hakbumo.or.kr>